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동양에스텍(060380)

금속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양기보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에스텍(060380)

내진강재형강, 열연코일강판 제조 및 포스코 서비스 & 솔루션 가공 센터

기업정보(2021/07/26 기준)

대표자	조남욱
설립일자	1981년 11월 12일
상장일자	2002년 02월 05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내진강재형강, 열연강판 외

시세정보(2021/07/26 기준)

현재가(원)	4,04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96
발행주식수(주)	19,700,000
52주 최고가(원)	5,870
52주 최저가(원)	1,305
외국인지분율	1.22%
주요주주	조남욱, 조은구, 박은희

■ 내진강재형강, 열연코일강판 가공 및 철강제품 제조 전문기업

주식회사 동양에스텍은 1차 형태의 각종 철강재를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로, 198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열연강판, 후판의 가공 및 판매, 강구조물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인 (주)동양알디, (주)디와이에스엠, (주)동양이엔씨, (주)디와이솔루션 등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강구조물 공사, 금속절삭기계 제조 등의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 전단 가공 및 내진용 강재를 이용한 BH빔 제조 기술력 보유

언코일러, 레벨러, 전단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전단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후판을 절단 및 용접하여 만드는 BH빔은 최대 900mm 수준까지 제작할 수 있는 공법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강판류는 두께에 따라 박판부터 후판 및 극후판 등이 있고, 열연코일을 전단 가공한 열연강판 제품, 모형 절단한 제품과 구조물용 원자재인 BH빔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업체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내진용 강재 Pos-H 제품 개발로 시장 내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철강 산업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백신과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및 전방사업의 회복세로 인하여 철강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주식회사 동양에스텍은 보의 춤 증가와 휨 성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원리를 착안하여 RH형강의 춤에 양측 플랜지 두께 만큼 더한 길이를 춤으로 하여 길이를 키우고, 이에 따른 부하 계수에 최적화된 두께를 적용하여 같은 성능의 RH형강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내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1,891	1.6	17	0.9	-6	-0.3	-0.5	-0.5	151.3	-12	2,611	N/A	0.6
2019	2,121	12.2	28	1.3	22	1.0	3.8	1.6	166.6	99	2,640	15.1	0.6
2020	1,868	-11.9	46	2.5	57	3.1	9.9	4.3	108.8	268	2,869	5.8	0.5

기업경쟁력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 추구

- 엄격한 허용오차 내 규격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축적된 기술력과 점유율 확대 전략

- 열연, 무늬강판, HR PLATE, BH빔 등 제조 기술력 보유
- 납기일 엄수 및 유통마진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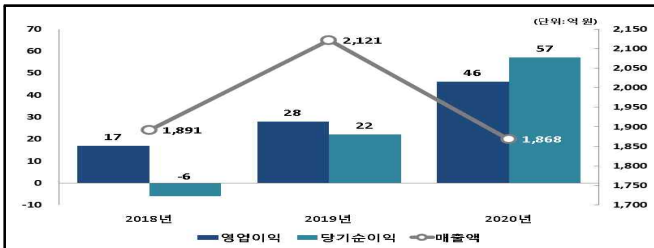
- 내진용 강재 Pos-H 제품 개발
- 열연, 무늬강판, HR PLATE, BH빔 등 제조

주요제품 및 사업

- 열연강판
- BH빔
- 폐기물
- 구조물



매출실적



시장현황

목표시장 내 경쟁력

- 세계 철강산업은 2016년 1,523백만 톤에서 연평균 3.86%씩 증가하여 2020년 1,772백만 톤으로 증가
- 수요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 폐기물 처리업, 강구조물 공사 등의 사업 외연 확장

최근 변동사항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철강수요 증가

- 2021년 전방산업이 회복세 및 주요국들의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철강 수요가 반등
-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 수요활성화로 매출 기대

시장흐름에 맞춘 제품경쟁력 강화

- 철강 가공 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 원가 절감을 위한 H형강의 제품, 성능구조 기술 개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SDGs
 ENVIRONMENTAL	- 에너지·온실가스(탄소) 이슈 - 제조 공정 후 부산물(철 슬래그, 철 스크랩 등)의 환경오염 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 철강폐기물 처리 이슈	- 제품 개발로 인한 강재량 절감 효과로 생산 대비 탄소량 감소 - 제조 공정 후 부산물(철 스크랩 등) 재활용 - 폐기물 수집 후 재활용순환골재 제조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OCIAL	- 장비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ISO 9001(품질) 인증 보유 및 자원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발 지속 - 인재 육성 지향 및 포용의 조직문화를 추구 - 400여개 거래처 인프라 구축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 주주 관련 책임경영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지분구조 개선 - 홈페이지를 통한 이해관계자 소통 운영 - 주주총회소집을 통해 원안 결정 후 의안 공개	 10 REDUCED INEQUALITIES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포스코 1차 협력업체, 열연강판 전문 유통 및 가공업체

동사는 열연강판의 가공 및 판매, 폐기물 처리 강구조물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철강재 관련 전단 가공 및 BH빔 제조 기술과 건설폐기물 관련 환경신기술(NET)로 인정받은 순환골재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기업개요 및 사업현황

주식회사 동양에스텍(이하 ‘동사’)은 1차 형태의 각종 철강재를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로, 198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열연강판, 후판의 가공 및 판매, 강구조물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포항과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수요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물류비 절감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00여 개 거래처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이후, 2007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자회사인 (주)동양알디, (주)디와이에스엠, (주)동양이엔씨, (주)디와이솔루션 등을 각각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강구조물 공사, 금속절삭기계 제조 등의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동사는 2021년 3월 말 기준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사의 대표이사 조남욱(남)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동사에 2014년 1월 경영전략실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3월부터 동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인은 철강 가공 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철강재 생산에서부터 공작기계의 제작, 건축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관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 주도하고 있다.

[표 1] 제품 및 서비스별 매출 추이 및 비중(종속회사 포함) (단위 : 억 원, %)

품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철강재 판매	963	50.9	928	43.8	753	40.3	248	48.0
철강재 제조	523	27.6	512	24.1	520	27.8	134	25.9
폐기물 처리	149	7.9	293	13.9	312	16.7	64	12.4
강구조물	103	5.5	273	12.8	172	9.2	38	7.4
절삭기계 및 규격소재	153	8.1	115	5.4	111	6.0	33	6.3
합계	1891	100	2121	100	1868	100	5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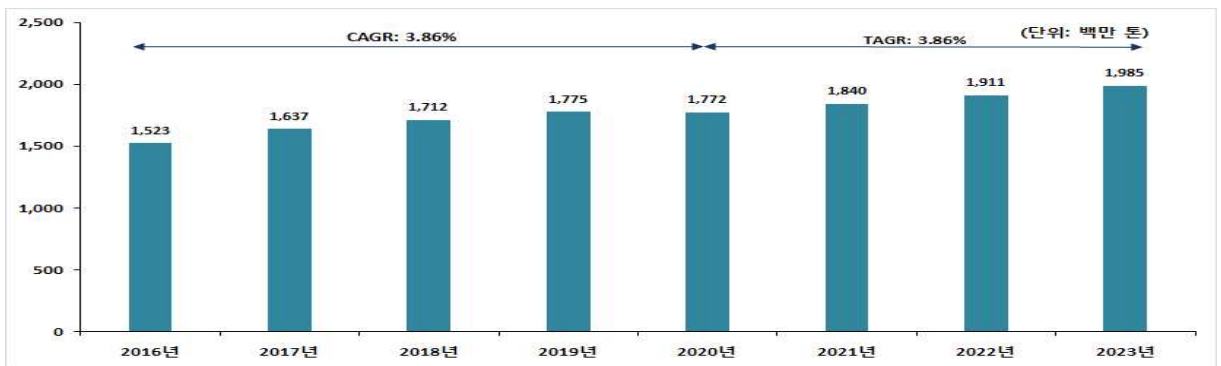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세계 철강 산업의 동향

2020년 세계 철강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철강 산업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및 전방사업의 회복세로 인하여 철강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철강협회에서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세계 경기 회복으로 전 세계 철강 소비량은 국가 지역별로 유럽 10.2%,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7.6%, 중국 3.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 World Steel in Figures(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철강 수요량은 2016년 1,523백만 톤에서 연평균 3.86%씩 증가하여 2020년 1,772백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3.86%씩 증가하여 2023년 1,985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세계 철강 수요량



*출처 : 2021 World Steel in Figures(2021년), 세계철강협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전단 가공 및 내진용 강재를 이용한 BH빔 제조 기술 보유

동사의 열연강판은 전단 공정을 거쳐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로 납품되고 있으며, 전단 가공은 (주)포스코에서 생산된 코일을 판재로 만드는 가공 기술로, 동사는 언코일러 → 레벨러 → 전단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화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치수 정밀도와 평탄도 확보는 물론, 깔끔한 전단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후판을 절단 및 용접하여 만드는 BH빔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최대 900mm(깊이) 수준까지 제작할 수 있는 공법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상품 및 제품은 열연강판, 무늬강판, 조선용 HR PLATE, BH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판류는 두께에 따라 박판부터 후판 및 극후판으로 분류되고, 가공된 제품은 크게 열연코일을 전단 가공한 열연강판 제품, 모형 절단한 제품과 구조물용 원자재인 BH빔 등이 있다.

[표 2] 주요 제품군

열연강판	BH빔	폐기물 처리	강구조물 공사

*출처: 동사의 브로슈어

II. 재무분석

전방산업의 회복세 및 경기부양책으로 철강 산업 강세

2021년부터 전방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요국들의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철강 수요가 반등하여 철광석, 철 스크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동사는 시장흐름을 분석하고 물량 확보, 납기일 엄수 및 유통마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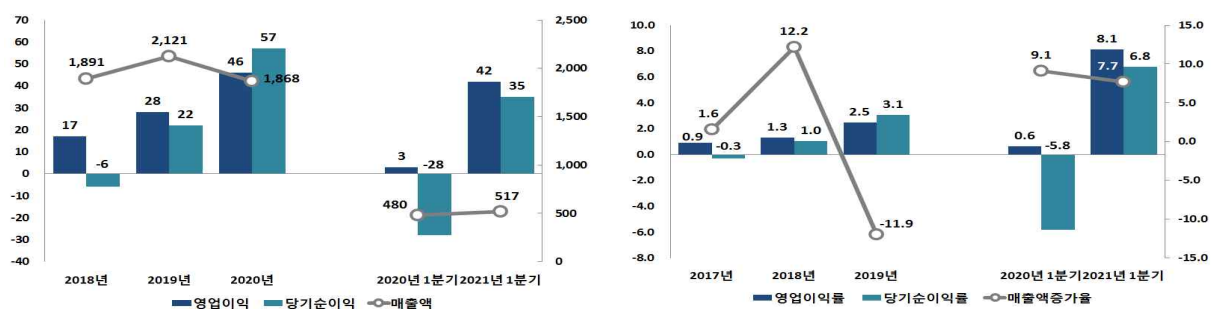
■ 전방산업 호조로 매출 신장 및 수익성 확대

동사는 1981년 11월 철강제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각종 철강제품을 산업 전반에 공급하고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로, 400여개 이상의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수요업체의 프로젝트성 수주계약 체결 시 장기적으로 수요에 맞춘 공급을 진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1,891억 원, 2019년 2,121억 원, 2020년 1,868억 원으로 보합세에 있으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매출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2018년 17억 원(0.9%), 2019년 28억 원(1.3%), 2020년 46억 원(2.5%)으로 증가세이다. 2021년 원재료 가격이 시장의 소요 등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출하가격을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어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42억 원(8.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백신보급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기저효과로 산업호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수익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USMCA, 유럽, 중국 등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어 수익성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외형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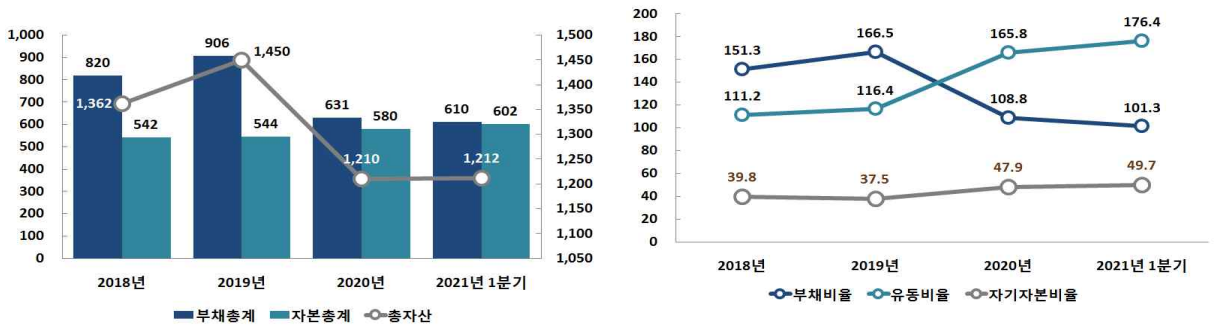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수익 개선으로 양호한 재무구조 견지

부채비율은 2018년 말 151.3%, 2019년 말 166.5%, 2020년 말 108.8%이고 유동비율은 2018년 말 111.2%, 2019년 말 116.4%, 2020년 말 165.8%이다. 2021년 1분기 말 부채비율은 101.4%, 유동비율은 176.4%로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2020년 말 대비 개선되었다. 이는 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동사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3] 주요 재무 현황 [K-IFRS 연결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매출액	1,891	2,121	1,868	517
영업이익	17	28	46	42
당기순이익	-6	22	57	35
매출액증가율(%)	1.6	12.2	-11.9	7.7
영업이익률(%)	0.9	1.3	2.5	8.1
순이익률(%)	-0.3	1.0	3.1	6.8
부채비율(%)	151.3	166.5	108.8	101.3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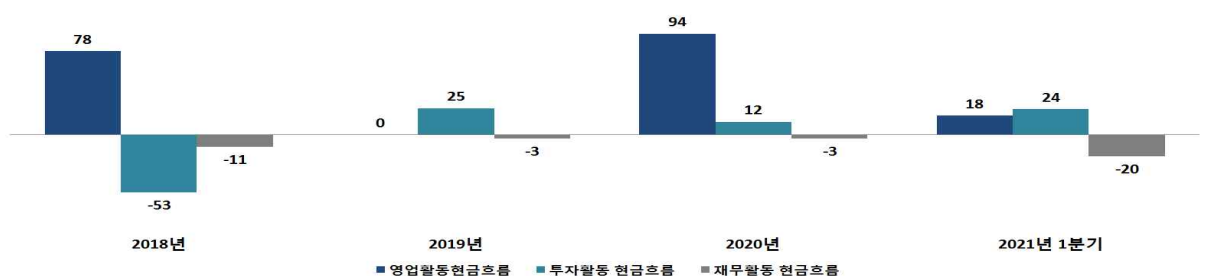
■ 풍부한 내부유보자금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

동사는 당기순이익 증가,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등으로 2019년 부(-)에서 2020년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의 지속 상환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1분기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한 당기순이익 증가 및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여 2020년 기말대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약 20억원 감소하였다.

[그림 4] 현금흐름 분석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세계시장 회복세 돌입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로 열연유통 시장 가격이 회복세에 돌입하여 지속적인 상승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탄소배출규제를 위한 생산량 감소,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등의 내수공급 우선정책 등으로 국내시장의 가격인상을 견인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로 철강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회복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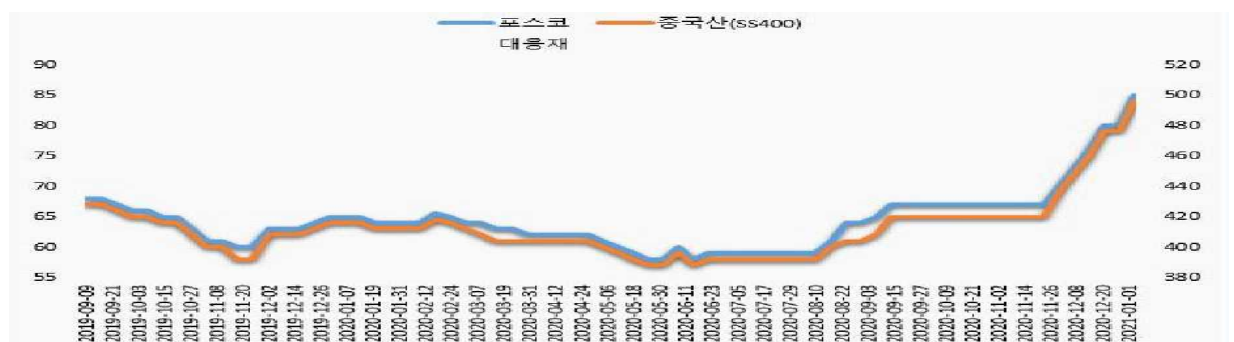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및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원자재(철광석, 철 스크랩 등)를 이용하여 봉, 형강, 판재, 강관 등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제철 및 제강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관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절단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철강 시장은 2021년 상반기부터 전방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요국들의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철강 수요가 반등했다. 이 여파로 철광석, 철 스크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여기에 공급 부족, 중국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등이 겹치면서 유례없는 철강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철강 수요 증가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 하락이 추세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 산업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기대된다. 주택 분양이 회복되면서 건설업 수요가 증가했고 조선업 수주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페로타임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하게 소폭의 변동으로 이루어지던 열연 유통 가격이 수요 증가와 철강 수급의 부족 현상으로 2021년 1월 기준 포스코산 열연은 톤당 85만 원, 중국산 열연은 톤당 84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5] 국산 및 중국산 열연 유통 가격



*출처 : 페로타임즈DB

■ 자체 기술력과 철강재의 확보를 통한 거래선 및 수익성 안정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2020년 조강 총생산량은 67,098천 톤을 기록하여 2019년 대비 생산량이 하락한 상황에서 열연 제조 기업들의 1분기 설비 수리로 인한 공급량 축소와 산업

수요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열연 및 후판 유통시장 내 실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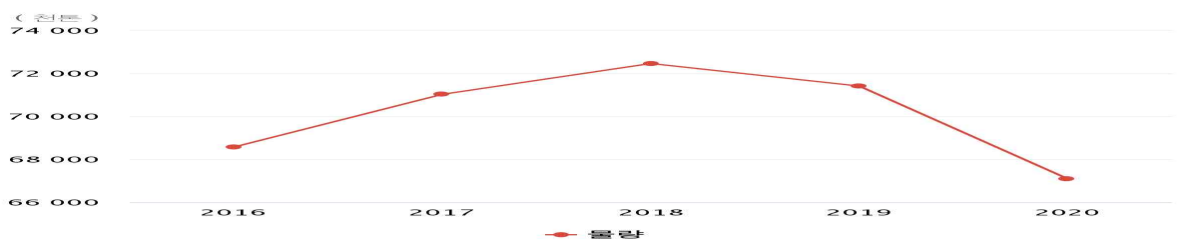
2021년 1~5월 기준 조강 총생산량은 29,228천 톤으로 전년 대비 6.7% 상승하였고, 열연강판은 7,330천 톤, H형강은 1,408천 톤으로 생산량이 각각 5.2%, 3.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성장세에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 4] 연도별 국내 조강, 열연강판, H형강 생산량 단위: 천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조강	68,576	71,031	72,464	71,411	67,098	29,228
열연강판	17,606	16,768	16,965	17,767	17,204	7,330
H형강	3,259	3,327	3,453	3,335	3,214	1,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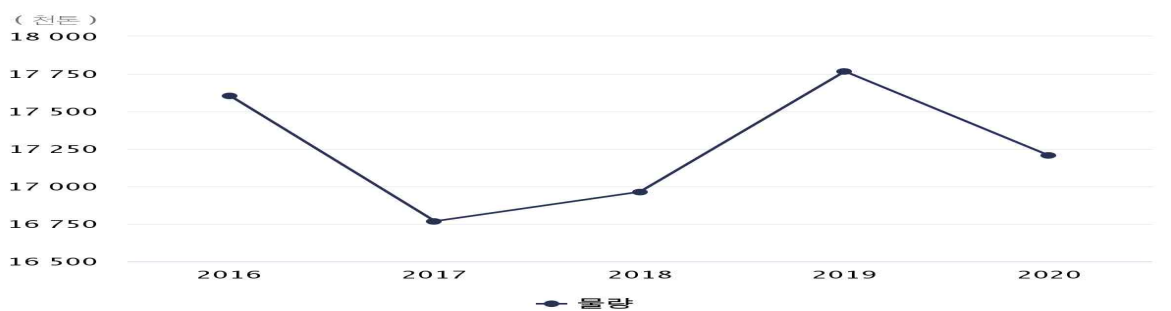
*출처: 한국철강협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6] 국내 조강(전로, 전기로)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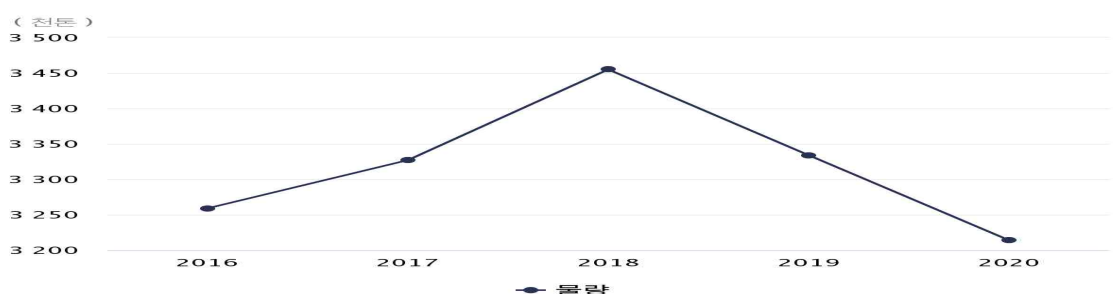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철강협회

[그림 7] 국내 연도별 열연강판 생산량



*출처 : 한국철강협회

[그림 8] 국내 열연 생산량 변동추이



*출처 : 한국철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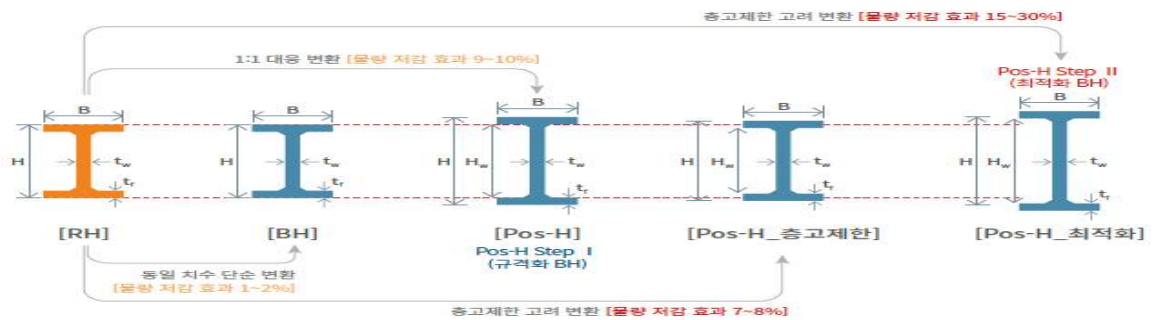
동사는 철강재 수요에 따른 무리한 영업을 통한 납기지연을 지양하고 있으며, 납기일 엄수 및 유통마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철강재 판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제작, 가공 기술을 다년간 축적하여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다지고 있으며, 건설자재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추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열연강판, 후판, 형강 등 철강재에 대하여 공급물량 확보에 사업전략을 두고 있으며, 제강사에 생산 방침에 따른 원활한 재고확보가 어려운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철강재 가공 이후 발생하는 철 스크랩 등 철강재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거래처와의 사업 유지에 힘쓰고 있다.

■ 포스코와의 내진용 강재 Pos-H 제품 공동 개발로 제품 경쟁력 강화

동사는 현재 공인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담당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품질과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관리팀을 보유하고 있고, (주)포스코,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 연구용역협약을 맺어 HR PLATE를 활용한 조립 H형강의 제작 성능 및 구조성능 개선기술 개발을 공동 연구하여 상용화하였다. 내진용 강재를 이용한 Pos-H 제품은 기존 BH 형강이 정해진 규격의 제품에서 치수의 단순변환형태 제조되어 왔다면, 동 제품은 보의 춤 증가와 휨 성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원리를 착안하여 RH형강의 춤에 양측 플랜지 두께 만큼 더한 길이를 춤으로 하여 길이를 키우고, 이에 따른 부하 계수에 최적화된 두께를 적용하여 같은 성능의 RH형강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9] Pos-H 제품의 물량저감 효과(춤 : H, 두께 : t, 폭 : B)



*출처 : 동사의 홈페이지

[그림 10] Pos-H 제품 특징

내진성능

- SN강재를 적용 세계 최고수준의 항복비 0.8 제공
- 보춤 1,200mm까지 특수모멘트 설계가 가능
- 세계최고 수준의 화학성분 제어를 통한 최고품질의 용접 성능 제공

경제성

- 세계 최다 단면 440종을 제공
- 최적화 단면으로 웨이브의 두께, 필렛(R)값 최적화 설계

편리성

- 고객맞춤형 엔지니어링(설계, VE설계)지원
- 단면크기(보춤의 높이, 플랜지의 폭)가 50mm단위 정치수로 변화
- 고객이 원하는 어떤 단면도 제공 가능

제작품질

- 엄격한 허용오차 규격으로 제작
- 겨울철 현장에서 용접하여도 대형단면에서 취성파단나지 않음

*출처 : 동사의 홈페이지

[표 5]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합계
	국내	국내	국내	
보유 건수(개)	1	2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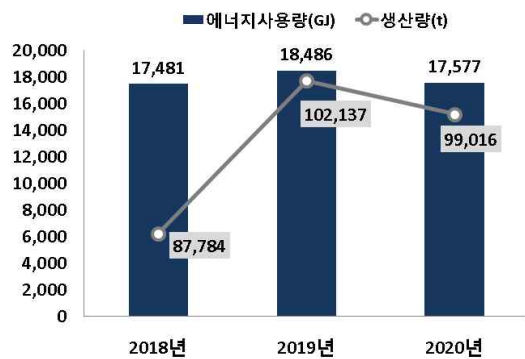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ESG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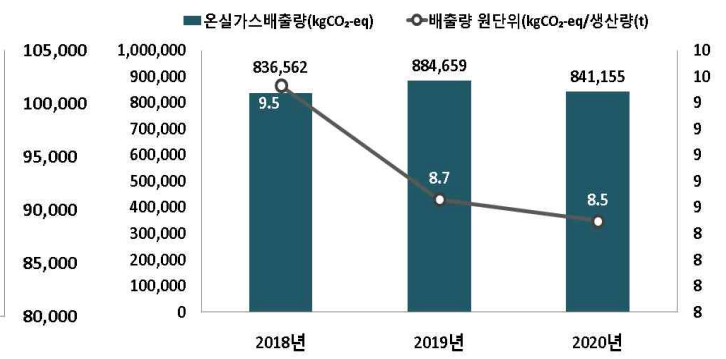
동사는 철강 제품 제조 외에도 종속회사를 통한 재활용 순환골재 생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제거 및 중간처분 처리업도 병행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근거한 폐석면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석면을 시멘트화, 고형화하여 유해물질의 방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관리형 매립지에 최종 매립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토지 재이용간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은 전기가 대부분이며, 동사의 2020년 에너지사용량은 17,577GJ, 온실가스배출량은 841,155kgCO₂-eq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가 2018년 9.5kgCO₂-eq/생산량(t)에서 2020년 8.5kgCO₂-eq/생산량(t)로 약 10.9% 가량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원단위



[그림 12]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원단위



*출처 : 동사,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기반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수가 2020년 3월 94명에서 2021년 3월 99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평등한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포용의 조직문화를 추구하여 앞장서고 있다.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의 대표이사는 지분구조개선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상호관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의 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홈페이지에 최신자료와 회사소개서를 게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